

110년의 복, 풍성히 누리는 교회

광주교회(설립 110주년)

광주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성결한 삶을 실천하는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다.

광주교회 110년의 발자취와 목회 사역, 비전을 김철규 담임목사에게 들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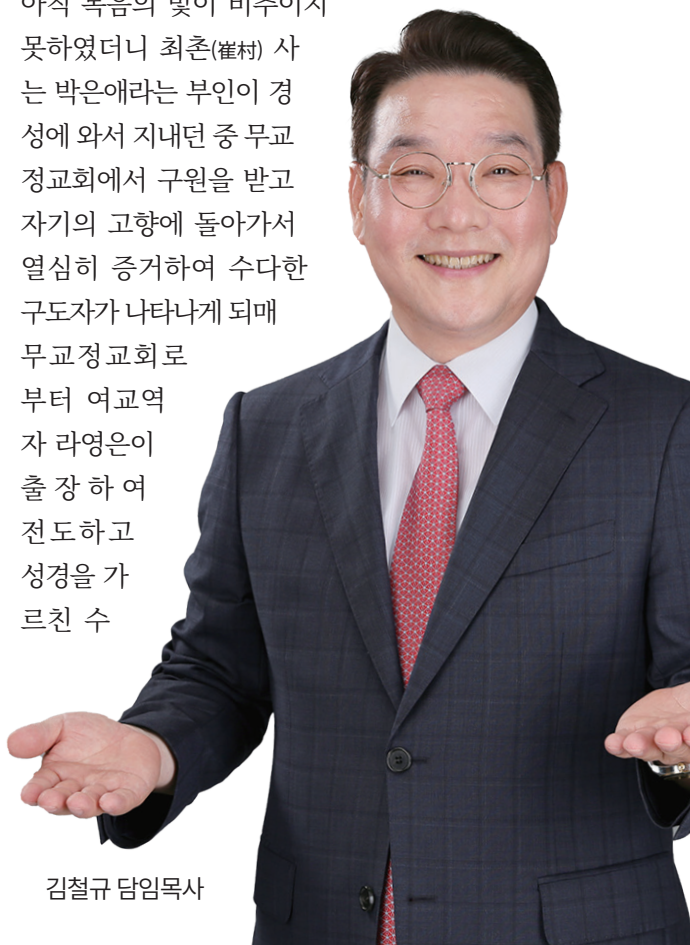
너른 고을에서 복음을 널리

“광주(廣州)시는 ‘너른 고을’ 광주로서 ‘빛고을’ 광주(光州)와 구별되며, 940년(고려 태조 23년)에 얻은 명칭입니다. 동으로는 양평군과 여주시, 서로는 성남시, 남으로는 용인시와 이천시, 북으로는 하남시와 남양주시를 마주하는 경기도 남동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 한강으로 이어지는 팔당호를 비롯한 상수원보호구역을 끼고 있으며, 수도권에서 가장 청정한 도시입니다. 서울시 강남구와 강동구, 성남시와 하남시 일부가 과거 광주에 속하였고, 조선시대에는 지금의 도청소재지였을 정도로 광주는 경기 지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인구는 약 41만 명이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이 있습니다. 광주원주고속도로의 기점이며, 제2중부고속도로와 세종포천고속도로가 지나가서 교통도 편리합니다. 광주교회는 너른 고을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래되고도 새로운 교회

“광주교회는 무교정교회(현 중앙교회)의 첫 번째 지교회로, 박은애 성도가 경기도 광주(경안읍)의 시택에

서 예배드리며 시작되었습니다. 평신도와 여성이 세운 경안복음전도관으로 전국에서 9번째, 남한의 5번째 성결교회였습니다. 이명직 목사는 『성결교회약사』에서 경안교회의 태동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습니다. ‘경안은 산간벽지라 아직 복음의 빛이 비추이지 못하였더니 최촌(崔村) 사는 박은애라는 부인이 경성에 와서 지내던 중 무교정교회에서 구원을 받고 자기의 고향에 돌아가서 열심히 증거하여 수다한 구도자가 나타나게 되매 무교정교회로부터 여교역자 라영은이 출장하여 전도하고 성경을 가르친 수



김철규 담임목사

십 명의 교인이 모이게 되매 1915년 5월에 교회를 설립한 이후로 십여 년 동안 전진 중이더니...”

“지금까지 23명의 목회자가 담임으로 섬겼습니다. 제18대 박동일 목사님은 1964년에 부임하여 주산 경리학원으로 학생들을 전도하였고, 장례문화의 꽃가마 전도로 많은 사람을 교회에 인도하는 등 그리더십으로 교회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제22대 한상윤 목사님은 1984년에 부임하여 성장과 함께 현재의 예배당과 교육관을 건립하며 교회가 지역의 신앙 교육 중심지가 되게 하였습니다. 제23대 김관영 목사님은 2000년에 부임하여 통전(通典)적 교회를 모토로 DTS 훈련과 아웃리치로 열방을 향한 선교의 기치를 세우고, 현 주차장 대부분을 구매하여 교회가 또 한 번 도약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3년에 제24대 담임으로 부임하였습니다. 12년 동안 목회하면서 ‘성결한 삶! 광주교회’라는 슬로건과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정하고, 전 통교회를 ‘오래되고도 새로운 교회’로 이끌며 많은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동안 새 가족의 유입으로 주일예배 인원이 800명대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 1,500여 명으로 부흥하였고 매년 평균 250여 명이 새 가족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110년의 하나 됨은 열매로

“광주교회 성도들은 숱한 고난과 어려움에도 한마음 한뜻으로 이를 모두 극복하였습니다. 일제 강점기 신사참배 강요에도 굴하지 않았고, 한국전쟁 1·4후퇴 시 예배당이 전소되는 어려움에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110년간 한 번도 분열하지 않고 한 교회로 오늘까지 그 역사를 잇고 있습니다. 광주교회 110년 역사에는 중요한 특성이 있는데 지금도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역사회 섬김’입니다. ‘밖을 향한 교회’를 모토로 주중에 주차장을 지역민과 지역사회 행사에 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 국회의원과



시의회 의장 등 지역사회 다방면에 리더 그룹을 형성하여 문화, 예술, 체육, 경제 분야의 리더로 활동하게 돕고 있습니다. 둘째,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의 예산은 영혼 구원과 양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주일이 결코 없는 광주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로, 다양한 관계 전도(오이코스)와 ‘더블선데이’를 시행하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셋째, ‘교회의 하나 됨’입니다. 온 교우가 당회를 신뢰하고, 당회는 지난 12년 동안 임직 투표 이외는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이렇게 하나 되어 함께 울고 웃는 하나님의 가족 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광주교회 세례교인은 1,622명, 교회학교 학생은 290명으로, 등록 교인은 1,912명입니다. 광주시 중심부에 자리한 성전은 1,200석의 대예배실과 소예배실, 각종 부속 건물, 1,300평의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 설립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필리핀 보홀에 ‘광주교회 100주년 기념교회 및 선교센터’를 설립하고, 선교사를 단독 파송하여 전 교

인 선교 및 비전트립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보홀의 ‘뚜비곤 한국문화센터’를 개관하여 경기지방회 내 교회와 협력하여 K-컬처를 통해 영혼 구원의 접착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 9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 국내 50여 기관과 교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교회 설립 110주년을 맞이하여 ‘110년의 복, 풍성히 누리는 교회’라는 표어로 열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110년사를 발간합니다. 둘째, 전 교인이 두 장씩 필사하여 성경을 완성하여 제작하고 보급합니다. 셋째, 110년 교회 역사 사진전과 영상 전시회를 합니다. 넷째, 광주교회 작가 초대전을 합니다. 다섯째, 유럽 종교 개혁지를 탐방합니다. 여섯째, 지역사회 초청 열린음악회를 합니다. 일곱째, 110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예식을 합니다. 여덟째, 필리핀 보홀 뚜비곤 한국문화센터를 개관합니다. 아홉째, 작은 교회 예배당 리모델링을 지원합니다. 열째, 광주교회 역사 행정문서 정리 및 아카이브(archive)를 구축합니다.”





화목한 교회로의 행복한 목회

“저는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B. A.), 신학대학원(M. Div.), 대학원(Th. d.), 그리고 드류대학교(D. Min.)에서 수학했습니다. 1994년 목사안수 후 인천에서 교회를 개척하였고, 울산교회 부목사, 언양교회 담임목사 5년, 서귀포교회 담임목사 9년을 거쳐 광주교회 담임목사로 12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 교회에서 ‘온전한 청빙’을 받았고, 그 26년의 담임 목회는 당회와 온 성도의 사랑에 힘입어 성실과 진실 그리고 열정으로 사역한, 무엇보다 화목한 교회로의 행복한 목회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계셨다면 당하셔야 할 고난이요, 주께서 온전히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도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훈련하는 수고다. 그러나 예수님의 맡겨주신 사역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쓰임 받는 것보다 더 큰 영광(기쁨)은 없다.’ 또한, ‘사역의 균형과 조화, 그리고 변화’를 강조합니다. 전통교회에 청빙(請聘) 받은 목회자로서 변화를 위한 키워드 여섯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당회원과 함께, 본질과 비본질 구별, 반복과 지속, 성과 창출’입니다. 특별히 예배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부흥과 성장은 예배요, 예배는 곧 설교요, 설교가 교회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요 전도’라는 생각으로 연중 5~6개 토픽을 정하여 5~6주간 시리즈로 설교합니다.”

“광주교회 사명선언문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성결한 삶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이를 토대로 광주교회는 세 가지를 추구합니다. 예배와 소그룹과 사역입니다. 예배는 주일예배와 수요일예배를 강조합니다. 소그룹은 구역과 팀 사역과 삶 공부입니다. 구역은 120개의 작은 교회로 모든 성도가 소속하여 참여함이

원칙이며, 삶 공부는 소그룹공동체 학습인 ‘TEE’ (Theological Education by Extension, 신학 연장 교육)를 성경 교육의 커리큘럼으로 삼아 평신도를 양육하여 잠재적 리더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사역은 교회를 위한 사역과 교회 밖을 향한 행복한 1인 1사역을 지향하며, 교회와 가정과 일터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엠마우스영성수련회를 통한 영적 변화를 추구하고, ‘온성도 성경 필사’와 전 교인의 ‘찬송가 필사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섬김과 돌봄을 통한 전도에 전심전력하고 있습니다. 20여 년간 매주 화요일에 대중교통(버스, 택시) 운전자에게 토스트와 커피 200여 개를 제공하였고, 목요일에는 길거리 및 문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교회로서 어와나(Awana), 성결문화교실, 아기학교, 아버지학교, 지혜자학교를 하는데, 특히 지혜자학교는 비신자도 참여하는 명실상부 광주의 노년(시니어)을 위한 마중물입니다. 이 외에도 독거노인 돌봄과 이웃사랑 쌀독, 소외계층 초청 삼계탕 데이 등을 하며, 베테랑스테이로 광주시에 거주하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약 150명)를 초청하여 격려함으로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하는 교회로 호평받고 있습니다.”

사명으로 비전을 향해

“‘오매불망’(寤寐不忘), ‘영혼 구원’(靈魂救援)에 ‘목양일념’(牧羊一念)이 사명입니다. 교단과 지역의 보편적 한계를 뛰어넘어, 주일 2,000명 예배자의 비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꿈이 자라는 땅’(꿈뽕)을 주의 은혜로 구매하였는데, 수년 내 이곳에 다음 세대를 위한 ‘드림센터’를 건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광주교회는 너른 고을에 복음 전하는 사명을 지속하며, 교회 설립 200년의 비전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宗



100주년 기념 필리핀 선교센터



영아 축복기도



성경공부



유년부